



# 秋史가 있어 고찰이 더 빛난다



阮先生真影



타계 사흘전에 추사가 남긴 붓은사 '판전' 현판글씨.

‘과천시절 추사글씨 탁본전’  
과천시민회관 2월 4일~ 18일

서예를 예술로 승화한  
美道合一의 경지

선생의 용필(用筆)은 금(鎭)의 상황에서 갑자기 굵고 가는 획이 자유롭게 전환하는데 모두 요묘한 이치가 담겨있어서 마치 마른 소나무나 묵은 등나무 같고 하고 구룡이 영리고 용이 휘감는 것 같기도 하며, 또 종정(鐘鼎)의 구름과 우리무늬 같기도 하여 변화가 무궁하고 신비를 헤아릴 수 없으니 어찌 감히 이를 지어 줄 수 있고 어찌 감히 표현할 수 있겠는가.  
- 정축년(1877, 고종 14) 중앙미술대 문생 소치 허련 삼가 쓰다.

추사체(秋史體). 모든 선입견을 놓고 무심한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에야 비로소 느낄 수 있는 서체. 서예를 예술적 경지로 전환시켜 미도합일(美道合一)의 경지에 올려놓은 추사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서예세계를 조명한 '추사체의 진수-과천시절 추사글씨 탁본전' 이 과천시와 한국미술연구소 공동주최로 2월 18일까지 과천시민회관 전시실에서 펼쳐진다.

이번 전시회는 추사 선생이 타계하기 사흘 전 남호 스님(永浩, 1820~1872)의 부탁으로 썼다 전해지는 붓은사의 '판전(版殿)'을 비롯 대흥사 '소영은(小靈隱)' 통도사 '성담상계(聖潭像閣)' '노곡소축(老谷小築)' 등 현판을 탁본한 40여점의 작품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밖에 목판 글씨첩 11종과 금석문 탁본 12점, 장구문 2종 목각 5종이 선보인다.

붓은사 판전은 추사가 자신이 쓴 편액 중에 스스로 편찮다고 평했을 만큼 말년 추사의 서예관을 잘 보여주는 수작이다. 동자체(童子體)라고 불리기도 하는 '판전'은 글자형태를 파괴하거나 서

체에 기교를 부리지 않아 고졸(古拙)한 맛을 풍기지만, 그 안에서 힘을 느낄 수 있는 명품이다.

대흥사의 '소영은'과 통도사 '성담상계' 등은 일반인에게는 처음으로 공개돼 그 의미를 더한다.

은해사에 있는 대웅전(大雄殿), 불광(佛光), 보화루(寶華樓)의 현판들 역시 추사의 예술세계를 잘 보여주는 작품들. 전시회를 기획한 문우서림

## 졸박하면서도 파격적 조형미 붓은사 현판등 70여점 전시

김영복 대표는 "은해사에 남아있는 작품들은 추사가 과천에 유배됐던 64~65세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붓은사의 판전 글씨처럼 졸박하면서도 강건한 힘이 들어있어 추사의 대표작품으로 손색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도사의 '성담상계'와 '노곡소축' 등은 19세기 통도사에서 이름이 떨친 대강백 성담(聖

潭) 의전 스님(儀典, 생몰연대 미상)과 노곡이라 전해지는 스님의 친분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당시 추사가 유럽 등의 사대부는 물론 불교계와도 밀접한 교분을 맺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밖에 추사는 평생 교분을 가진 조의 스님(德恂, 1786~1866 다도 중흥사(中興寺)을 위해 대흥사 노전(盧殿) 현판 일로향실(一爐香室)과 동국선원(東

## 불교학에도 능통, 고승들과 친분 소박 강건 고졸한 기품 느껴볼만

國禪院)을 썼으며, 은해사 말사 백흥암에는 산해송심(山海崇深)을, 추사 집안의 원찰인 화암사에는 무량수각(無量壽閣)을, 쌍계사 중국 육조대사 혜능 진영탑 전각 위에는 세계일화(世界一花) 등 수많은 작품을 남겨놓았다.

추사는 승유억불(崇儒抑佛)정책의 조선시대에 왜 이토록 많은 사찰현판을 남겨놓았을까?

추사의 서예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고려대 보건대학 김영환 명예교수는 추사가 글씨로 세상에 많이 알려졌지만, 원래 서예보다 금석학, 불교학, 경학(經學) 등의 학문에 더 조예가 깊었다고 말한다. 특히 불교학에 능통했고 조의·의전 스님 등 여러 고승들과 친분이 두터워 사찰에 많은 글씨가 남아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서예가들 역시 추사가 남긴 현판작품의 수를 추산하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현재 확인되는 추사 현판 중 절반가량이 사찰의 현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미술연구소 홍선표 소장은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대부분 추사 말년의 작품들로, 추사체 특유의 졸박기교(拙朴奇巧)한 파격적 조형미와 구성미에 의한 시각적 자극이 태고적 본성과 잘 조화된 작품들"이라며 "각 사찰마다 찾아다니며 추사글씨를 접하기 힘든 만큼 이번 탁본전시회는 추사의 예술관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3677-2064

김은경 기자 ipok@buddhapia.com

## 현판 속 명인과 명필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사찰 현판 속에는 수많은 명인과 명필들의 흔적이 남아있다. 일반적으로 현판의 글과 글씨는 사찰의 창건 및 중건을 지휘했던 스님과 지방 문인이 담당했지만, 사찰이나 스님과의 특별한 인연 등으로 당대를 호령하던 세도가들과 문인들이 글을 남기는 경우도 잦았기 때문이다.

우선 여주 신록사 누각 구룡루에는 조선후기 4대 문장가로 불리는 김택영의 시현판이 남아있으며, 인천 용궁사에는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10년

## 대부분 특별한 인연에 의해 제작 흥선대원군·권혁 작품등이 현존 사찰의 역사 고증하는 중요 자료

간 머물며 직접 쓴 '용궁사' 편액과 시주기 현판인 '영종백운산구담사시주절' '용궁사현판송문' 등이 현존한다.

인천 보문사에는 우리나라 9대 문장가 중 한사



김택영이 쓴 여주 신록사 구룡루 '詩 龍軒'

람으로 손꼽히는 이경창의 미문(美文) '강화군보문사중증공공독판기'가 글로 남아있고, 고성 유점사에는 스님이자 조선후기 문장가였던 지탁 스님

의 글 '금강산유점사설선당중건기'가 부석사 안양루에는 임진왜란 당시 의승군을 조직해 호국공신으로 추앙받는 사명대사의 초서현판 '부석사안양루중건기'가 걸려있다. 이밖에 경북 수태사에는 조선후기의 유명한 문신인 권혁의 '수태사법당중창기'가 대구 남지장사에는 정조가 조선 역대 스님 중 제일의 문장가'라고 평한 의침 스님의 '일주문' 현판이 고흥 금담사에는 원교체라는 특유 필체를 고안한 조선후기 명필 이광사의 '명부전' 등이 남아있다.



추사의 예서체 중 백미로 꼽히는 통도사 현판 '일로향각'(위) 추사의 문하생 허련이 판각한 <원당탁목>의 첫 표지(아래).



이들 명인, 명필들의 현판은 해당사찰의 역사 뿐 아니라 당 시대의 역사를 뒷받침하는 좋은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김은경 기자



추사가 대흥사에 보낸 현판 '소영은'.

## 釋經寺

### 대법회 비법 공개!

특강 - 부처님께 왜 절을 해야만 하는가?

### 첫째: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절을 왜 하게 만들었는가?

생로병사(生老病死)와 열반(涅槃)과 해탈(解脫)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모든 중생들에게 절하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 둘째: 우리는 과연 부처님께 항상 어떠한 자세로 기도를 해서만 내가고자 하는 일을 이룰 수 있는가?

### 셋째: 우리가 기도를 올리면 과연 법신은 움직이는가?

### 넷째: 기도와 화합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 매일 셋째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특별법회와 절 비법 특강을 합니다.

### 삼학불교대학 입학안내

- 1. 승려반 (2년과정 수시모집)
  - 강의일시: 매주 화, 금 (오후 6시 ~ 9시)
  - 강의내용
    - ▶ 천도제, 49재, 집안, 바라춤, 경전, 태징, 복지는법

- 시련
- 대형
- 관속
- 신중장법
- 상단권공
  - 1. 북청계
  - 2. 천수바라
  - 3. 도량계
  - 4. 거불
  - 5. 현좌계
  - 6. 다계
  - 7. 향수나열
  - 8. 사다라니바라
  - 9. 가지계
  - 10. 하정
- 관음시식
- 화엄시식
- 구병시식
- 불상점안

※ 경전 및 의식문에 나오는 한문을 한자 한자 풀이하여 강의하므로 한문을 모르는 분도 수강하시는 데 불편 없으시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釋經寺 三學 佛敎大學

인천시 남동구 만수3동 산 2-2호  
전화문의 : (032)462-7322, 463-1630, 469-8797, 011-322-1630  
주지 최 해월 합장  
• 오시는 길 : 동암역, 백운역 (간석3동 태화아파트 / 만수3동 벽산아파트 뒤)

## 7일 명상으로 원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 ◆로드프라나 명상이란?

프라나(감로.생기) 호흡법과 로드프라나 36가지의 각종 명상법을 통해 몸과 마음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상승시키는 기법.

### ◆로드프라나 명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 ▶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 진다  
잠자던 몸이 깨어나 몸속에 황금빛 광채가 생기고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원을 이루고 개인의식이 무너져 우주식으로 확장되어 집중력, 이해력이 증대되어 지혜의 눈이 생긴다.
- ◆ 누구나 길을 찾아 원하는 삶을 열어준다.
- ◆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고요의 평안 속으로 이끌어 준다.
- ◆ 삶에 지친 몸과 마음에 프라나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 ◆ 가진 것은 잃게 되고 배운 것은 남듯이 내가 클수록 장애가 심하고 내가 작을 수록 세상이 가벼운 것. 간.쓸개 빼고 살면 부자가 될 수 밖에 없고 속을 텅 비우면 모든 일이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진다.

◆ 지금까지 길을 찾지 못한 것은 깨달음, 고정 관념, 자기의 틀을 벗어 던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기육백공.선밀공.프라나호흡.프라나 동작.36장 관조 · 관음법을 통하여 우주의식으로 확장시키면 스스로 알지 못했던 길을 찾게된다.

### 길타기 3단계

- ▶ 1단계 : 능력확대 (의식확장, 시, 노래, 춤, 연주, 그림 등)
- ▶ 2단계 : 지혜의 눈 (달변, 예시, 투시, 치유 능력)
- ▶ 3단계 : 전인왕성 (본래의 자리에 들)

###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 과정)

다른 차원의 세계 (우주세계)로 못가는 것은 의식과 생각을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식 집중을 통해 영혼체 정신체 인 본신을 만들어서 유체이탈을 통하여 천문 제6세계까지 영체와 우주세계를 연결한다.

### 천문 열기

- 제 1세계 (우주세계, 합일세계) → 제 6세계 (우주세계, 자재세계)
-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과정)

### 명상지도자 양성과정 (1년)

- 자격 : 24세 ~ 33세까지
- 학력 : 고졸이상
- 수련과정 : 로드프라나 36장, 프라나호흡, 난소호흡, 원룡공, 관조, 관음, 관상법수련, 선밀공, 오기육백공

로드프라나 명상센터 본부  
대구광역시 남구 봉정1동 729-4  
☎ 053)471-0433